

'중국현대미술의 오늘'을 보다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10주년 '북경서신'전... 10월13일까지
중국입주작가 21명 초청, 회화·미디어·조각 등 전시... 광주 방문도

요즘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꼭 거쳐 간 곳이 있다. '북경창작센터'다. 작가들은 이곳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간 머물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담금질했다. 북경창작센터는 초창기 중국 문화예술핵심 지역인 북경 789 문화예술구와 인접한 곳에 문을 열었고 2017년부터는 예술가들의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밀집한 송창지역으로 장소를 옮겼다.

북경창작센터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지난 2009년 말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세계 미술 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전국 공립미술관 가운데 첫 사례로 지난해까지 지역 작가 42명과 기획자 2명이 입주해 활동했으며 현재 4명의 지역작가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센터를 거처간 작가 중 박소빈, 윤일권 작가는 지금 중국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중이며 임용현 작가도 양국을 오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중국작가들도 함께 입주했다. 지역 작가들이 중국과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센터의 인재를 돕기 위한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양국 작가가 함께 한 공간에 어우러지면서 교류가 확대되고, 센터 역시 현지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는 등 '한중 미술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북경에 머물렀던 지역작가들은 해마다 '북경집주'라는 타이틀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성과물을 공개해왔다.

이번에는 북경창작센터 개관 10주년 특별전으로 중국 입주작가들을 초청해 기획전 '북경서신'전을 연다.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경창작센터에 단기로 입주했던 중국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미디어,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우이치양, 조우치, 리강, 왕귀평, 리티엔위엔, 후친우, 저우흥빈 등으로 '중국 현대미술의 오늘'을 가늠할 수 있

는 기회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광주를 방문, 지역 작가들과 교류하고 문화현장을 둘러본다. 장쉬에루이 작가를 제외한 20명의 작가들은 18일~21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전시 개막식 참석, ACC투어, 담빛에 술창고, 해동주조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함께 북경창작센터에 머물며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과도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참여 작가 대부분은 어린 시절 중국 문화대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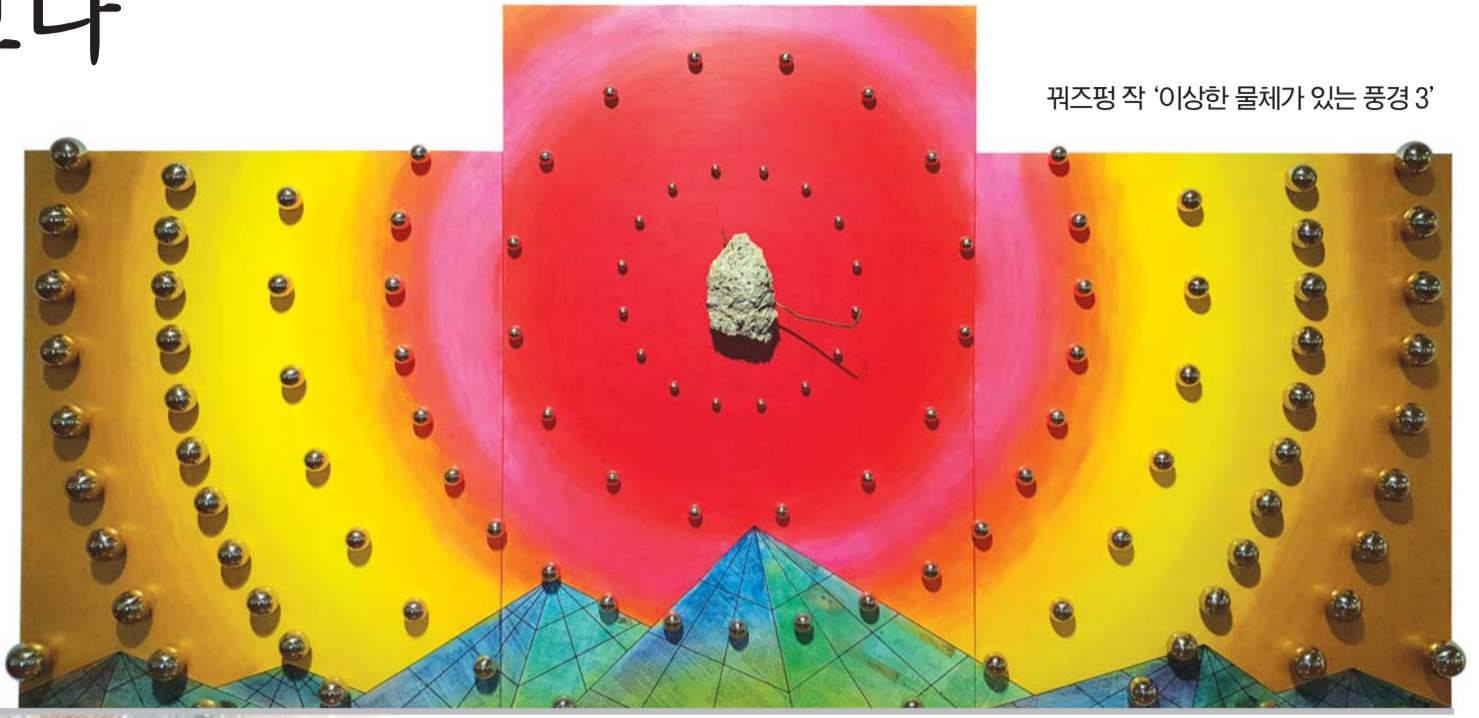


뤄핑 작 '춘산독서도 5'

(1966~1976년)을 경험하고 개혁개방의 변혁기에 자란 1960, 70년대생이다. 이들은 변혁기 중국 사회의 단면, 인간 본연의 정신적 사고에 대한 고찰,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고민, 인간 존재 및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 등 폭넓은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1980년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에 출생한 작가들은 사회, 정치적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려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대형 북한 사진으로 유명한 왕구평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대작 '이것은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며, 더욱 미래도 아니다'를 선보이며 뤼핑 작가는 채색 담채로 다양한 독자 풍경을 중국적 느낌으로 담은 '춘산독서도'를 전시한다. 또 쓰마오 작가의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 느낌을 유화로 표현해내 독특한 느낌을 전한다. 전시 개막행사는 19일 오후 4시 미술관 본관 5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613-71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궈징핑 작 '이상한 물체가 있는 풍경 3'

카자흐스탄 초청 '세계유목민축제 국제박람회' ACC, 최석현·한경희·이남희 명장 한국대표 추천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 '세계유목민 축제 국제박람회'에 공예장인 최석현(울칠공예), 한경희(한지공예), 이남희(조각보) 3인이 대한민국 대표로 추천됐다.



최석현 명장



한경희 명장



이남희 명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카자흐스탄관광청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세계유목민축제 국제박람회'에 ACC와 협력 중인 공예장인 3인을 대한민국 대표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석현(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칠장) 이수) 장인은 나전칠기 분야 대가로 광주 신창동 유적 발굴 시 재현작업에 참여했다. 한경

희(2014년 광주광역시 명장 지정) 장인은 40여 년 동안 전통 한지를 이용해 엄지와 검지로 비벼 꼬아 만드는 지승 공예 전문 작가다. 이남희(대한민국명인회 조각보명인 인증) 장인은 산수도사관 옆 '손길갤러리'를 개관한 이후 규방 공예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다가 쉬다가, 우리네 인생 김영화 초대전, 22일까지 갤러리S

서양화가 김영화 작가는 몇년전부터 차박(車泊)에 빠져 있다. 정해 놓은 것 없이 마음이 내키면 아내와 함께 간단히 짐을 챙겨 떠난다. 서둘러 도착해야 할 곳이 없는 터라 풍광 좋은 곳을 만나면 차를 멈춰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우연'이 만들어낸 산물들은 예기치 않은 기쁨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사계절의 변화를 '은묘로' 자연스레 느낄 수 있는 게 매력이다. 꽃과 나무와 바람과 해와 달은 계절에 따라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영화 작가 초대전이 오는 22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갤러리S에서 열린다. 전시 '가다가 쉬다가, 인생여행 길'은 여행과 인생이 다르지 않음을 느낀 김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을 만나는

기회다.

이번 전시작들은 계획적인 치밀함 보다는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구성을 통한 결과물이다. 여행길에서 만난 모습들은 화려한 색감과 어우러져 동화적 느낌을 풍기며 여릴 시절을 추억하게 한다. 누군가가 쳐놓은 텐트,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차 안 풍경, 여기에 동백과 목련, 뽕꽃 등 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패목에 그린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여행 중 무심히 눈에 보인 폐선의 나무를 쟁겨 집에와 한참을 들여다 보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린 작품들이다. 나이테는 자연스레 물결이 되고, 바람의 흔적이 돼 근사한 바다 풍경이 만들어졌다.



'목련이 필때면'

조선탄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사)목우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사)한국국립미술가협회 광주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8-8765. /김미은 기자 mekim@

'인형엄마' 엄정에 작가와 7월7일까지 예술창작 워크숍

'365일 인형을 만드는 인형엄마' 엄정에 작가. 그녀는 생각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인형을 만든다. 1976년 인형극과 워크숍 진행을 계기로 인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인형에게서 근심, 걱정, 슬픔 등을 치유하는 힘을 발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접목해왔다.

인형엄마 엄정에 작가와 함께하는 시민예술창작 워크숍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시민자유대학교 전남대학원연구교육센터, 문화예술 기획단체 아르떼창이 공동으로 '큰 인형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교육청 수탁사업 '나람 인문교육프로젝트'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

는 7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오후 2시)에 전남대 응지관(1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수업 내용은 '인형제작 설명과 드로잉', '인형제작 1·2·3', '의상과 백팩 작업', '색칠 작업, 의상·나무 작업', '인형 움직임, 마무리 작업', '함께 움직임을 연습과 퍼레이드' 등 실습과 강의 위주로 구성됐다. 워크숍 후 자신이 만든 인형을 쓰고 벌이는 거리 퍼레이드, 전시도 예정돼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재료비 5만원은 본인 부담. 문의 062-961-11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